

2016. 7. 21.(목)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인일보

2016년 07월 21일 (목)
17면 문화

경기도·관광공사 'DMZ 미술대회' 25일까지 참가 모집

초교 4~6학년 중·고등부 총 300명... 내달 15일 연천서 열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다음달 15일 연천 호로고루 일대에서 열리는 '2016 DMZ 미술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DMZ 접경지역인 연천 호로고루 일대에서 초등부(4~6학년),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부문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점인된 4절 켄트지를 받아 대회 당일 공개되는 주제에 맞게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용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휴대폰 이미지나 사진 출력본 등을 모사할 경우 실격처리된다.

오는 25일까지는 학교장 추천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후 신청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추



가모집을 진행한다.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학교당 최대 참여인원수는 5명으로 제한하고, 학교장 추천접수 기간 중 모집이 마감될 경우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는 총 21개의 상이 마련됐다. 대상 1명에게는 통일부장관상을, 나머지 20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연천군수상, 경기관광공사 사장상 등을 각각 수여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경기도 DMZ 공식홈페이지(<http://dmz.gg.go.kr>) 공지사항에서 전형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스캔본을 이메일(walkyourdmz2016@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17.6 X 11.3 cm

경기관광공사 '2016 DMZ 미술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관광공사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경인방송=구대서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다음달 15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인 연천 호로고루 일원에서 열리는 '2016 DMZ 미술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술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학교장 추천자를 먼저 모집 후 미달된 부문에 대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합니다.

시상자는 총 21명을 선발하며, 대상 1명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나머지 20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 연천군수상, 경기관광공사 사장상 등을 각각 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DMZ 공식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관광공사 DMZ 미술대회 사무국(031-956-831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4.4 X 13.0 cm.

서울경제

2016년 07월 21일 (목)
33A면 전국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내일부터 체류형 팸투어

경기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에서 체류형 팸투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그동안 평화누리길 관광객들이 제기했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숙박시설 미비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마을회관을 활용해 꾸린 숙박·휴식시설이다. 이번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팸투어는 DMZ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DMZ 일원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윤종열기자

9.4 X 5.9 cm

“DMZ 평화누리길, 이제 체류형 관광시대”

경기도, 22~24일 팸투어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위해 2박3일간 견기·명소 방문 판매장 체험·숙박·간담회

각계 인사 30여명 참여 지역주민과 토론회도 개최

경기도가 22일부터 24일까지 '한반도 평화와 생명의 길'인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DMZ 일원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에서 '체류형 팸투어'를 실시한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그동안 평화누리길 관광객들이 제

기해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숙박 시설 미비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마을회관을 활용해 마련한 숙박·휴식 시설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팸투어는 DMZ 홍보와 관광·경제 활성화를 이끌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각층 유명인사 30여명이 참여해 2박3일 동안 평화누리길 견기, 안보·역사·자연 등 지역 명소 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체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숙박, 지역 주민들과의 토론회·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행사 첫째 날은 김포 대명항에 집결해 덕포진까지 평화누리길 1코스 엄하강 철책길을 걷고, 김포 국제조각공원과 애기봉을 관람한 후 다시 2코스 조강철책길을 걷는다. 이후 조강리 게스트하우스 1호점에서 숙박하며 주민들과 지역

평화누리길 1코스 (엄하강철책길)

대명항 - 문수산성 14km/4시간 소요



평화누리길 12코스 (동일아름길)

군남홍수조절지 - 신탄리역 24km/7시간 10분 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둘째 날은 연천 신탄리역~도신리 방아다리 평화누리길 12코스를 걷고 태풍전망대에서 DMZ 관광을 한 후 로하스 파크에서 군남 홍수조절지까지 평화누리길

11코스를 걷는다. 이후 옥계리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3호점에서 숙박을 하며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파주시 율곡읍 지공원~임진강변 생태탐방로 7.2km를 걷고, 임진회관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팸투어 기간 중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새로운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평화누리길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트레킹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김포시 조강리 마을회관에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을, 5월에는 파주시 자장리 한옥회관에 2호점을, 6월에는 연천군 옥계리 문화복지회관에 3호점을 개점에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 = 김연근 기자
ykkim@kmib.co.kr
25.8 X 13.3 cm

숙박시설도 완벽 '평화누리길' 놀러오세요

2박3일간 체류형 팸투어 게스트 하우스 1호점 소개

경기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에서 체류형 팸투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마을회관을 활용해 만든 숙박시설로 지난 4~6월 김포·파주·연천에 문을 열었다.

이번 팸투어는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

하고, DMZ 일원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김포 대명항에 모여 덕포진까지 평화누리길 1코스 엄하강 철책길을 걷고 국제조각공원과 애기봉 관람, 2코스 조강철책길 견기 등을 진행한다. 이후 조강리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에서 숙박한다.

둘째 날에는 연천 경원선 신탄리역에서 도신리방아다리까지 평화누리길 12코스를 걷고 군남면 옥계리 게스트하우스 3호점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를 갖는다.

마지막 날은 파주시 율곡읍 지공원에서부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7.2km를 걷은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화누리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트레킹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서 내일부터 체류형 팸투어 진행

경기도는 오는 22~24일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에서 체류형 팸투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그동안 평화누리길 관광객들이 제기했던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 숙박시설 미비점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해 꾸린 숙박·휴식시설이다.

이번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팸투어는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 유명인사 30여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2박3일동안 평화누리길 걷기, 안보·역사·자연 등 지역 명소 방문, 농특산물 판매장 체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숙박,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팸투어 첫째날은 김포 대명항에서 집결해 덕포진까지 평화누리길 1코스 염하강 철책길을 걷고 김포 국제조각공원과 애기봉을 관람한 후 다시 2코스 조강철책길을 걷는다. 이후 조강리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으로 이동, 숙박을 하면서 마을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연천군에서 시작해 신탄리역~도신리 방아다리(평화누리길 12코스)를 지나 태풍전망대~로하스 파크~군남 홍수조절지(평화누리길 11코스)까지 걷는다.

이후 옥계리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3호점으로 이동, 숙박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

5.7 X 18.0 cm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도, 22~24일 팸투어 운영 김포·연천·파주

경기도는 22~24일 각계 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김포·연천·파주에서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팸투어를 한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만든 숙박시설로, 지난 4~6월 김포·파주·연천에 각각 문을 열었다.

팸투어는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은 김포 대명항에 모여 평화누리길 1코스 연하강 철책길 걷기, 국제조각공원과 애기봉 관람, 2코스 조강철책길 걷기 등이 진행된다.

이어 월곶면 조강리 게스트하우스 1호점에서 숙박한 뒤 다음날 연천군으로 이동한다.

참가자들은 연천 경원선 신탄리역에 집결, 평화누리길 12코스와 11코스를 걷는다. 이후 군남면 옥계리 게스트하우스 3호점에서 머물며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

마지막 날은 파주로 장소를 옮겨 울곡습지공원부터 임진강 생태탐방로 7.2km를 걸은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을 김포시 조강리 마을회관에 개장했고, 5월에는 파주시 자장리 한옥회관에 2호점을, 6월에는 연천군 옥계리 문화복지회관에 3호점을 각각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팸투어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화누리길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트래킹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중철 기자 jcleee@incheonilbo.com

경기도, 22~24일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팸투어

경기도, 22~24일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팸투어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2~24일 각계 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김포, 연천, 파주에서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팸투어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만든 숙박시설로, 지난 4~6월 김포·파주·연천에 각각 문을 열었다.



평화누리길 걷기[연합뉴스 자료사진]

팸투어는 평화누리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은 김포 대명항에 모여 평화누리길 1코스 임하강 철책길 걷기, 국제조각공원과 애기봉 관람, 2코스 조강철책길 걷기 등이 진행된다.

이어 월곶면 조강리 게스트하우스 1호점에서 숙박한 뒤 다음 날 연천군으로 이동한다.

참가자들은 연천 경원선 신탄리역에 집결, 평화누리길 12코스와 11코스를 걷는다. 이후 군남면 옥계리 게스트하우스 3호점에서 머물며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한다.

마지막 날은 파주로 장소를 옮겨 울곡습지공원부터 임진강 생태탐방로 7.2km를 걸은 뒤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 관계자는 "팸투어를 통해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